

코치진과 우승 기념 촬영하는 리바키나

등록 2026.02.01 09:37:29



[멜버른=AP/뉴시스] 엘레나 리바키나(5위·카자흐스탄, 오른쪽 세 번째)가 지난달 31일(현지 시간)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호주오픈 여자 단식 정상에 올라 우승컵 '다프네 아크허스트 메모리얼 컵'을 들고 코치진과 함께 기념 촬영하고 있다. 리바키나는 결승에서 지난해 준우승자인 아리나 사발렌카(1위·벨라루스)를 2-1(6-4 4-6 6-4)로 꺾고 생애 첫 호주오픈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. 2026.02.01.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